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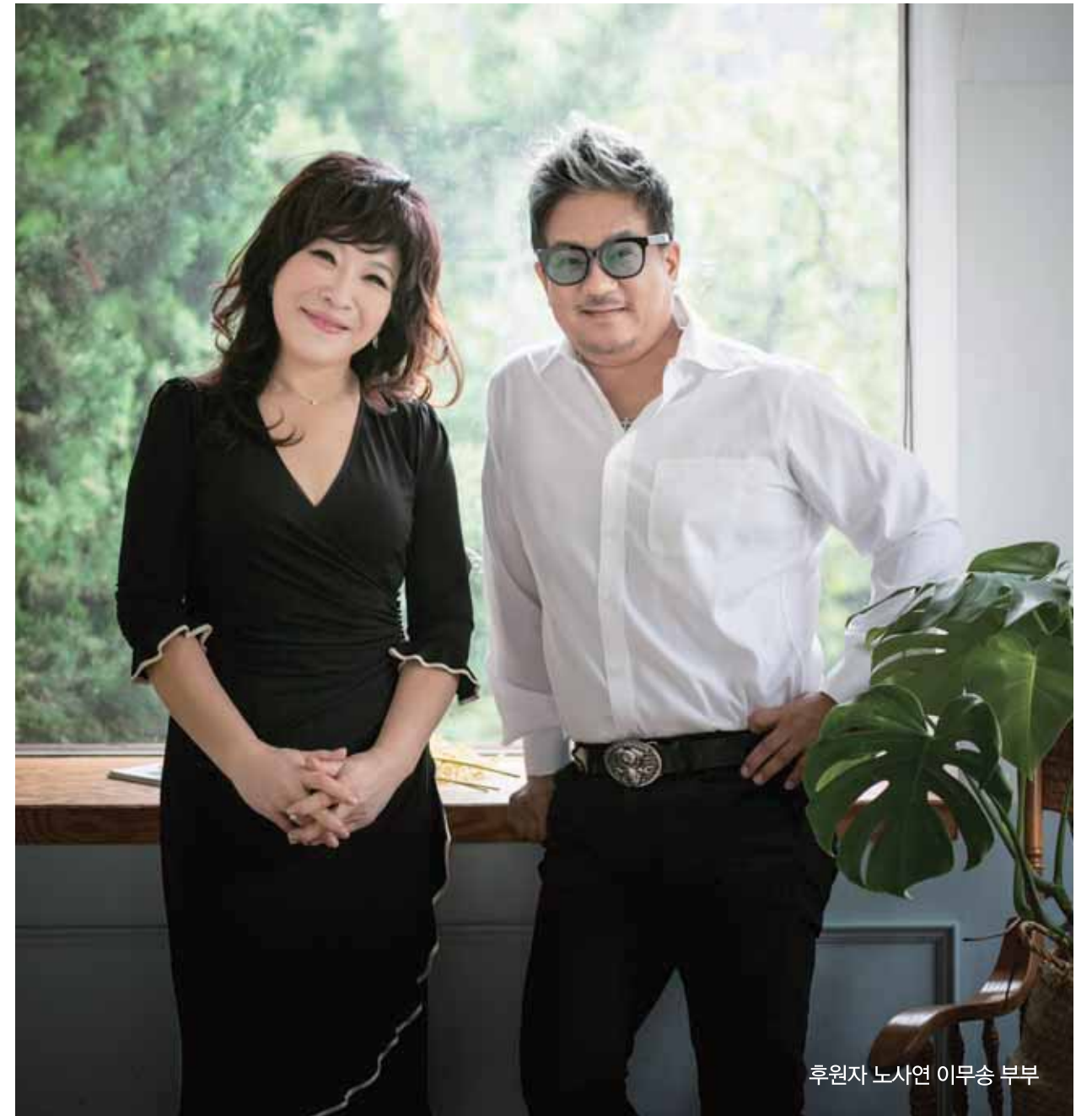
CGNTV MAGAZINE

Autumn 2018_Vol.21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438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후원자 노사연 이무송 부부

목차

후원자 스토리

Special

- 2 주님 안에서, 25년 부부로 -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 6 선교하는 기업으로 - (주)트리니티씨앤티 최신애 대표
- 8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 남원임마누엘교회
- 10 CGNTV와 친구 되기 - 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목사

후원 특집

- 12 5만 명의 후원자가 세워진다면

TV

Contents

- 14 [신규] 예수님의 온기 36.5°
- 16 맞춤특강 나침반 '청년 특집'
- 18 나침반 플러스 '소망' 편

모바일

- 20 KNOCK REPLAY - '빨간약' 인터뷰
- 21 KNOCK 미니휴먼다큐 '이웃사춘기'

선교지의 아침

Mission

- 24 아프리카 우간다 정봉진 선교사

국내뉴스 / 해외뉴스

News

- 26 국내
- 28 해외
- 30 편성표
- 32 에필로그 - 벨살롬교회 김형익 목사



COVER STORY

CGNTV 후원자인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CGNTV를 아끼는 그들의 삶과 은혜를 나눈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8년 10월 7일(통권 제21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어대준, 김 란, 추정현

글 조인애

사진 어대준, 추정현, 스파지오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주님 안에서, 25년 부부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요.”

최근 이무송, 노사연 부부의 방송 출연이 많아졌다. 특히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비친다. 25년 부부로 살아온 두 사람의 호흡일까. “우리는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두 사람은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다. CGNTV 후원자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부터 연예인으로 사는 동안 늘 CGNTV와 함께해왔다.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CGNTV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인터뷰의 첫마디도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 할 텐데”라는 바람의 말이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꾸준히 CGNTV와 유대를 이어왔다. CGNTV의 여러 무대를 장식했고 후원도 해왔다. 지난 CGNTV 방송분에는 그들의 다양한 찬양, 진솔한 이야기들이 우정의 기록처럼 남아있다. 이 집사가 단장으로 섬기는 ACTS29 연예인 합창단 무대도 있다. CGNTV를 아꼈던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마음을 표현해왔다.

“주님을 향해 가장 마음이 뜨거웠던 때 CGNTV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제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노 집사는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때, 신앙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어머니는 3년여간 의식이 없으셨고,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했다. 교회의 초청 무대들도 열심히 섰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위급상황이 겹쳐 공연 중 기도를 부탁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은혜로 이어졌다. 소위 주일 신앙이었던 그녀가 가족 모두를 구원하셨던 어머니의 투병과 임종을 지켜보면서 몸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천국을 소망하게 됐다.

“성경 말씀이 제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본향을 바라보게 됐죠. 지금은 특별히 미운 사람도 없어요.”

그녀에게 CGNTV는 그 순간 곁에 있던 방송이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노 집사는 CGNTV를 통한 은혜가 깊어 남편 이 집사에게도 자주 그 감사를 전했다. 남몰래 후원행사를 찾아 말없이 후원금을 낸 적도 있었다.

남편 이 집사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 과정들을 지켜왔다. 2016년 CGNTV 토크쇼 <하늘빛향기>에 동반 출연했던 두 사람은 당시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이 집사 또한 결혼 후 그런 은혜의 때가 있었다.



“성경 말씀이 제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에게 CGNTV는 그 순간 곁에 있던 방송이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2012년 2월, 이무송은 연예인들이 월 1회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합창단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다. 다소 얼떨떨했지만, 그날로 그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7년째 ACTS29 연예인 합창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예인 합창단은 세대를 망라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매주 한데 모여 함께 예배하고 공연을 준비한다. 지난 여름에는 50여 명이 2박 3일간 MT도 다녀왔다. 이 집사는 합창단을 시작하면서 소위 속성으로 영적 도전을 받았다. 영적인 사람들과의 새로운 교제가 열렸고, 필요한 무대들이 생기며 하나님을 증거했다. 또 그 무대들이 CGNTV를 통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소개됐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개성 강한 연예인들이 오랜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노 집사는 우스개처럼 스스로 연예인 합창단 단사님(단장 사모님)이라 칭한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합창단 사역에 동참했다. CGNTV에 대한 애정도 그랬듯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두 사람을 더욱 하나로 이끌었다.

평소 두 사람은 CGNTV의 해외 목회자 말씀강해를 즐겨본다. 집에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TV를 켜고 오가면서라도 말씀을 듣는다. “존 파이퍼, 조셉 프린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어려운 이름들이 주머니 받거나 부부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 “김용의 선교사님의 ‘다시 복음으로’도 좋잖아. 하와이 웨인 코테이로 목사님 말씀도 좋고.” 부부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한참 이어졌다.

“CGNTV를 통해 다양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는 부부는 “해외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이 국내와 또 달라 영양공급을 골고루 받는 느낌”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은 ‘CGNTV가 순수한 방송’이라는 점에 깊은 애정을 표했다. 노 집사는 “세상의 험한 뉴스들에 지칠 때 CGNTV로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또 “방송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교회 출석이 어려울 때



CGNTV를 보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아 좋다”고 전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하며 25년을 동행해 온 두 사람.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린 서로 다른 점이 많다”고 말해온 그들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재차 “우리가 부부 됨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터뷰는 내내 각자의 말이 아닌 서로의 말을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이무송 노사연 부부는 서로 툭툭거리며 싸워도 일이 생기면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 “기도할 때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 있는데 감사하고 또 어느 순간 둘이 아닌 주님도 함께 셋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최근 이 집사는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다. 트로트 장르로, 너무 좋아서 떨리는 마음을 표현해 제목이 ‘부르르’란다. 부부에 의하면, 이 곡은 이 집사가 아내 노사연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한다. 하나님 주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인터뷰 말미에 노 집사는 CGNTV의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이 참 좋다”며 “더 많은 손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집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CGNTV와 함께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며 “지금도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주실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선교하는 기업으로

(주)트리니티씨앤티 대표 최신애 후원자는 최근 회사의 이름으로 선교지 열 곳에 CGNTV 안테나를 후원했다. 이로써 '선교와 구제'를 설립 목표로 둔 회사로 뜻깊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어쩌면 CGNTV를 늘 곁에 두고 있는 최신애 후원자에게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CGNTV는 그냥 계속 끼고 살아요. 차에서도, 집에서도, 그리고 주말엔 거의 종일 틀어놓지요. 자거나 일하는 시간을 빼면 늘 CGNTV와 함께 합니다.”

최신애 후원자는 회사를 시작하면서 CGNTV 후원을 염두에 두었다. 처음엔 안테나 비용을 몰라 망설이기도 했지만, 알아본 비용이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아 감사한 마음으로 첫 후원을 시작했다. 뜻을 함께하는 직원들도 그녀의 행보를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다.

“앞으로도 천 대, 만 대 선교지에 안테나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최신애 후원자가 운영하는 트리니티씨앤티는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 등을 상대하는 헤드헌팅 회사다. 지금은 국제 무역을 위한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신앙 색이 확연한 회사명에서도 엿보이듯, 최신애 후원자는 성경적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한다. 인재들에겐 기회를, 기업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매커니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마음이다. 일터 사역자들을 세워, 그들이 회사 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돕고자 한다. 준비 중인 국제 무역 사업 아이템도 선교사들과 협력해 선교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인도 돕고, 선교지 재원도 마련하길 바란다.

최신애 후원자는 이러한 자신의 도전들에 대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녀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선교와 구제’의 삶이었다. 마치 설계도에 따른 건축 과정처럼, 최신애 후원자의 3, 4대는 지금의 일들을 위한 여러 신앙적 계기들이 있었다. 그녀는 30대 때, 회사에서 예수전도단 간사였던 한 믿음의 동료로 만나 신앙이 크게 성장했다. 이에 멘토를 놓고 더욱 기도 하면서, 25년간 아프리카 수자원 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귀한 멘토 선교사를 만났고, 성경공부 모임을 계기로 선물 받은 책 한 권으로 ‘선교와 구제’의 삶에 눈을 떴다. CGNTV도 어느 순간, 그녀 곁에 늘 함께했다.

“CGNTV는 선물 같은 존재예요. 제 삶에 샘물이고, 러닝메이트죠. 이제까지 워킹맘으로 살면서 힘든 때도 많았는데, CGNTV가 있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CGNTV를 통해 언제나 원하는 말씀강해를 찾아봤고, 큐티를 못 했을 땐 CGNTV부터 틀어놓았다. 이애실 사모, 유진소 목사 등 다양한 세미나들은 잊지 못할 영적 양식이었고, 외국 생활을 오래 해 크레이그 그로셀, 카일 아이들먼, 데이비드 플랫, 맥스 루케이도 등 해외 목사님들의 말씀은 늘 친근하고 은혜로웠다. 최신애 후원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믿고 볼 수 있는 TV가 곁에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이들이 알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 “CGNTV가 늘 그 순전함을 이어가도록 오늘도 세세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덧붙였다.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전북 남원의 남원임마누엘교회는 성도 8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다. 불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토착화돼 있고, 내륙 특성상 새로운 변화에 더딘 곳에 위치한 작은 등불 같은 곳이다. 2014년 개척 예배를 드렸다. 성도 8명 중 다섯 명이 담임인 김종국 목사와 박경숙 사모, 그들의 세 자녀, 사모의 친정어머니와 남 집사 한 명, 건물주인 권사 한 명이 교회의 한 가족이다. 조출한 모임이지만 그들의 예배는 매주 은혜가 있고, 성도마다 중심이 분명하다. 또 함께 CGNTV를 후원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더욱이 매 주일 CGNTV로 예배드리며 CGNTV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임마누엘교회가 CGNTV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박 사모의 CGNTV <열린새신자 예배> 사랑에서 비롯됐다. 청년 시절, 10여 년간 군 선교에 헌신했던 박 사모는 선교에 소명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새신자들을 향한 예배의 말씀과 순서들이 즐겁고 좋았다. 남편 김 목사도 같은 은혜를 느끼며, 올해부터 라이브로 방송되는 CGNTV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이재훈 목사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구역예배 형태로 드리던 예배를 내려놓고 CGNTV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척 후 김 목사 내외는 여러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 땅 밟기와 전도의 열매도 생각 같지 않았다. 교회에 와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도 방법에 고민이 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적인 것을 나눌 동역자의 부재였다. 박 사모는 “그 갈증이 CGNTV를 만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며, “남원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품게 됐고, 더 힘든 선교사님들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박 사모는 이러한 복음의 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1년여간 매주 ARS로 CGNTV를 후원해왔다. 이후 CGNTV 정기후원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후원을 시작했다. 박 사모는 “우리 교회는 건물 주인이신 권사님이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계셔, 현금이 들어오면 선교밖에 할 것이 없습시다”라고 했다.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은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동은 그대로 느낀다. 연초 특별 새벽기도와 매일 하는 큐티도 CGNTV와 호흡을 같이한다. 박 사모는 “기도하며 만드신 방송인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듯, 평일에도 늘 CGNTV를 곁에 둔다.



채널 번호를 메모해 가서 집과 사업장에서도 CGNTV를 시청한다. 김 목사도 좋아하는 해외 목회자들의 말씀을 자주 찾아보고, 박 사모는 평소 지역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공부방으로 열어두고 있어 어린이 설교를 챙겨본다. 특히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의 애청자다.

김 목사는 “비록 남원임마누엘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남원 땅과 속한 곳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제 그들은 후원을 통해 CGNTV도 품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빛을 얻어도 아깝지 않은 가족의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CGNTV와 친구 되기

구미국제교회 권주는 목사가 CGNTV 후원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소개된 CGNTV KNOCK 미니휴먼다큐 <구미가족사람>의 주인공이다. 차를 팔아 지체 혹은 그들 가족의 수술비까지 마련하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의 나눔을 시작했을까. 그는 “CGNTV와 평생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노크팀을 처음 만났을 때 사역 13년 차였는데, 지쳐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던 때, 평소 애청하고 신뢰하던 CGNTV에서 찾아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됐다”고 했다.



권주는 목사는 현재 경북 구미에서 구미국제교회를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을 섬기고 있다. 밤에는 대리 기사, 낮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출생지도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다. 지금까지 권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은 외국인이 150여 명 가까이 된다. 하지만 권 목사에게 구미는 고향인 대구와 가깝지만 외로운 사역지였다. 20대 중반부터 외국인 사역을 해온 권 목사에게는 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 2013년 처음 접한 CGNTV는 그가 찾은 우물 같은 방충이었다.

“참 많은 설교가 있었지요. 세미나와 집회는 어떤 곳보다 찾아보기 좋았고, 영적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평신도에게 열려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KNOCK도 그가 즐겨 찾던 콘텐츠 중 하나였다. 정작 본인의 출연이 다소 망설여졌지만, 공개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뿐 아니라 권 목사에게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의 세 딸 중 당시 5학년이었던 첫째 딸은 몰랐던 아빠의 삶을 알게 되면서, “아빠 멋있다”는 말을 전했다. 아들의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자랑스러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큰 위로가 됐다. 그간 부모의 눈엔 아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권 목사의 노크 출연을 계기로 더욱 아들을 이해하게 됐다.

이후 권 목사에게는 CGNTV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이전에는 몰랐던 홈페이지 내 후원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고, CGNTV가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도 알게 됐다.

그는 서슴없이 이 사역에 마음을 보냈다. 또 “적은 금액이지만 평생 함께 하는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CGNTV를 만난 후 사역의 한고비를 넘긴 권 목사는 여전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난다. 교회뿐 아니라 공장 지대를 찾아다니며 같은 언어를 쓰는 친구들을 그룹별로 따로 만나 봉고차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교회는 하나지만 성도가 열 명이면 열 개의 교회를 하는 셈이다. <구미가족사람>을 제작한 노크팀 PD는 제작후기에서 권주는 목사 내외를 “정말 친형, 친누나 같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권 목사도 “다큐를 찍는 동안 한 명을 찍더라도 진정한 모습을 담고자 했던 제작진이 정말 귀해 보였다”고 전했다. CGNTV와 권주는 목사는 이미 참 좋은 친구인 듯하다.



한 영혼을 섬기는 CGNTV 의 "5만명 후원자" 가 되어주세요

CGNTV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상업광고 없이 순수 후원으로만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점입니다. 광고주의 간섭없이 복음 위주로 편성할 수 있는 반면 후원받을 만한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성령충만한 방송에 충실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NTV를 CGNTV답게 하는 것은 바로 후원입니다.

- CGNTV 이용경 대표



5만 명의 후원자가 세워진다면

순수 복음 콘텐츠를 더 많이!

전 세계 한 영혼을 살리는 순수 복음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시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갑니다.

기독교 콘텐츠 장르의 다양화



힘 있는 영상 콘텐츠와 함께 은혜와 감동을 더하는 드라마, 영화 등의 장르별 콘텐츠가 확대됩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2017), 드라마 '다시 봄' (2017), '고고송' (2018)

한국교회를 깨우는 콘텐츠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한국순례기', '예수님의 운기 36.5" (2018)

뉴미디어 시대,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

미래 방송 기술을 도입,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더 멀리 향할 보다 경쟁력 있는 방송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해외지사 맞춤 사역 강화



국가별 맞춤 미디어 사역을 통해 현지인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펼칩니다. '미디어 아카데미', '해외지사 맞춤 콘텐츠 제작'

신규 플랫폼 개발



앞선 방송 기술 및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CGNTV와 만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가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앞선 생각, 맞춤 콘텐츠로, 한국교회의 새 희망이 됩니다.

다음 세대 맞춤 콘텐츠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들의 성장을 위한 맞춤 콘텐츠들이 많아집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KNOCK' 등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다음 세대를 품는 기성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들이 이어집니다.

'나침반 플러스-소망', '세미나' 등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의 온기 36.5°’



노량진 학원 거리. 치열한 경쟁 속 가방을 메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 중에 여유가 묻어나는 얼굴들이 보인다. 또 학원을 향해 가며 무언가 계속 기도하는 학생도 있다. 학원가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란다.

신규 프로그램 ‘예수님의 온기 36.5°(이하 <36.5°>)’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 365일 36.5도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온기를 담았다. 국가고시 준비로 뜨거운 노량진 학원가와 젊은이들의 문화가 가득한 홍대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36.5°>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시청자들과 함께 여러 ‘그곳’을 바라본다. 또 그 안에서 신앙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명한다. 주변에서 언제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36.5°> 제작팀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을 주관하



1.3. 노량진 고사촌 풍경
2. 홍대 크리스천 페스티벌을 섬기는 이들



방송 일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2018년 10월 23일 첫 방송

<36.5°> 제작팀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소통하게 되길 바랐다. 이에 그들은 불철주야 각 현장의 눈이 돼 움직였다.

사전답사와 취재를 통해 제작진이 미리 본 그들은 진정한 그들만의 온도가 있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남다른 이해와 배려가 있었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리 보였다. 그것은 홍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노래를 부르는 누군가도 그랬다.

“밝고 따뜻한 다큐가 될 것”이라는 제작진의 말은 모두 현장에서 건진, 있는 그대로의 콘셉트다. 여기에 <36.5°>는 영상에 찬양과 말씀 메시지를 곁들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 섬마을 사람들, 고려인 마을, 그리고 사이버 세상까지. <36.5°>가 바라본 따뜻한 그곳은 10월 23일부터 만날 수 있다.



청년들을 세우자!

맞춤특강 <나침반> 청년특집 공개 녹화 현장



#1. 공개 녹화 현장

맞춤특강 <나침반> '청년특집' 공개 녹화가 지난 9월 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열렸다. 강연과 콘퍼런스를 결합해, 청년 사역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네 명의 강사가 각 주제별로 강연을 펼치고, 남은 세 강사가 이에 대해 질문하고 토의하며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청년특집'에는 즉석에서 청년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어져 열기를 더했다.

강연을 펼친 네 강사는 다년간 한국 청년 선교에 힘쓴 국내 대표주자들이다. 강연 순으로 1강 전경호 목사(다음세대 코칭센터), 2강 임은미 선교사(CAM대학신교회), 3강 최유강 대표(드림터치포울), 4강 이상갑 목사(청년사역연구소)다. 네 사람은 경험을 토대로 한 흥미로운 강의는 물론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꿀팁을 전수했다.

#2. 주요강연 테마

1강의 주제는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다. 전 목사는 이를 총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중고등부 시절의 신앙교육 약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청년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목양이 없는 과중한 교회 봉사, 청년 사역자의 전문성 부재와 잦은 교체 등 공감되는 내용을 전했다.

2강의 주제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현직 대학교수기도 한 임 선교사는 1강의 이유들을 신앙이 있는 대학생과 없는 대학생으로 세분화해 그들의 생생한 고백을 소개하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한 자신의 섬김 사례를 더했다.

3강은 최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교육 NGO 사역 중인 최 대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을 주제로, 목적의식, 공동체성, 이웃을 돌보는 마음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 4강은 '한국교회여, 차세대와 소통하라'를 주제로, 이 목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현 산본교회 담임목사기도 한 그는 차세대에 눈높이에 맞춰, 말씀에 따라 섬기며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3. 관객들과의 대화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강연 후 강사들에게, 적용을 위한 열띤 질문들을 던졌다. 특히 참석자 20여 명 중, 청년 사역자 및 리더들이 상당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이상갑 목사, 전경호 목사, 임은미 선교사, 최유강 대표



첫 질문은 청년들과 관계를 트는 노하우에 대한 것이었다. 이 목사는 "청년들은 스스로 의미 있는 일엔 시간과 열정을 쏟는다"며, "그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했다. 또 "일주일 내 바쁜 청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된다"는 한 사역자의 물음에 "우선순위와 쉼해야 한다"며 "한 청년의 인생을 위한 양육 훈련에 확신이 있다면 방법은 나온다"고 했다.

전 목사는 세대 통합에 대한 관점에 관해 질문을 받고 윗세대가 아랫세대에 맞추는 통합을 권장했다. 또한 청년들도 먼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전 꿀팁을 덧붙였다.

임 선교사는 버거운 교회 사역을 고민하는 한 청년 리더에게 "우리는 양이지 소가 아니다"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했던 한 청년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맞춤특강 <나침반> 청년특집 녹화 현장의 더 풍성한 내용은 오는 10월 15, 16, 22, 23일 CGN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맞춤특강 <나침반>
방송 일시 : 매주 월, 화 오전 8시

다음 세대, 사랑으로 소통하며



Q
A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들과 잘 소통하고 있을까. <나침반 플러스> 세 번째 시리즈 '소망' 편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이를 진단해봤다. 실제 다음 세대들의 상담 현장을 지켜보며 그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교회, 가정 등 매회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사역자들을 통한 특 특 튀는 소통의 꿀팁도 전한다. 이에 다음 세대들이 말하는 주제별 고민을 출연자 멘토 사역자들을 통해 들어봤다.



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나 성격, 형편 같은 것들이 친구들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잘 섞이지 못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A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구나. 먼저 다가가고 싶고,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고, 또 네 모습 그대로 당당한 사람이 되고, 넌 정말 멋진 소망을 가지고 있어. 우리 같이 그 길을 찾아보자.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너와 같이 나온 사람들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해주셨어. ‘내가 곧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라고도 하셨고,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찾아보자. 어려운 이야기 해주어서 고마워.”
- 한울고등학교 이성재 목사

<나침반 플러스> 소망 편

- 방송 일시: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 MC : 최윤영 아나운서
- 패널 : 나도움 목사, 명성진 목사, 박현동 목사, 이성재 목사, 이요셉 목사, 전용제 목사
- 다시 보기: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진로

Q “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은 것 같다가도 이내 확신이 무너집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A “지금 꿈이 없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지.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찾게 돼. 또 진로를 확실하게 정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열심히 가보면 어떨겠니? 가다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 방향을 바꾸어도 괜찮으니깐. 너는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 하늘샘교회 전용제 목사

#상한 마음

Q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마음 둘 곳이 없어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위험한 생각도 들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A “태어날 가정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야. 부모님, 환경, 태어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은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목적과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거야.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이고, 지금 너의 삶이 너무 아프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를 살릴 최고의 무기가 될 거야. 절대 이유 없는 상황은 없어. 모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란다.” -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

#친구 관계

Q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렵고,

무한재생 감성 하모니

KNOCK REPLAY '빨간약' 인터뷰

CCM 그룹 '빨간약'의 노래가 모바일 뮤직 콘텐츠 <KNOCK REPLAY>에 소개됐다. "빨간약 진짜 좋아하는데... 나만 아는 그룹인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아침에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스트리밍으로 빨간약 정주행 중입니다" 등 반응이 뜨겁다. 무한재생을 부르는 <잇쉬가 잇사에게>, <내 모습 이대로>, <밤이나 낮이나> 등으로, 가을을 적시며 영성과 감성을 깨우는 '빨간약'의 여성 멤버 김지영 씨를 만났다.



'빨간약'은 어떤 팀인가요.

저와 남성 멤버 기동하, 기타의 김지후로 구성된 3인조 혼성 CCM 그룹입니다. 교회 대학부 찬양팀을 함께 하면서 2015년 고난주간에 '갈보리산 위에' 영상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CCM 7곡, 가요 2곡의 음원을 발표했고, 유튜브를 통해 CCM과 가요 커버 등 약 100곡을 소개했습니다. 팀명인 '빨간약'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노래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더 깊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팀명처럼 따뜻한 메시지의 음악들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번 <KNOCK REPLAY>에서 부른 곡들을 소개해주신다면.

<잇쉬가 잇사에게>, <내 모습 이대로>, <밤이나 낮이나> 세 곡입니다. 첫 곡은 추가로 많이 불리는 곡입니다. 원곡자가 제 친구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실 배우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밤이나 낮이나>는 워낙 많이 불리는 명곡들이죠. <밤이나 낮이나>는 신촌의 거리에서 찍었는데,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 곡들을 음원으로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 4월 음원 발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의 노래는 주님의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노래했을 뿐인데, 여러 곳에서 불러주시고 더 많은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계획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에 저희의 템포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KNOCK REPLAY 영상 보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KNOCK 노크' 검색 또는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SOON 페이지

KNOCK 미니휴먼다큐 <이웃사춘기>

네 자녀가 있는 풍경

경기도 가평. 자연을 벗 삼은 강내우, 이지민 집사의 가정은 그들의 네 자녀로 늘 북적인다. 하늘(14), 다빈(9), 햇살(6), 이슬(5)이 있는 집. 미니휴먼다큐 <이웃사춘기>는 입양으로 네 아이의 부모가 된 강 집사 가정의 풍경을 담았다.

결혼 후 7년간 아이가 없었던 부부는 오랜 기도 끝에 네 아이를 입양했다. 특히 주로 권유받는 신생아 입양 대신 큰 아이들을 입양했다. 가장 먼저 2015년 햇살이를, 이듬해 이슬이를 자녀 삼았고, 올해 첫째 아들 하늘이를 맞았다. 둘째 아들 다빈이는 이제 입양 마무리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입양은 선교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조심스럽게 맞이한 강 집사 부부. 첫째 하늘이는 반년 실컷 놀다 이제 홈스쿨링으로 좋아하는 공부를 시작했고, 햇살, 이슬 자매는 햇살처럼, 이슬처럼 교회와 가정에서 밝고 맑게 뛰어논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목상하며 이제 네 번째 아이의 인생에 동참하려는 강 집사 부부. 입양과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 집사 가정의 따뜻한 이야기가 10월 노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KNOCK 미니휴먼다큐 영상 보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KNOCK 노크' 검색 또는 CGNTV 홈페이지 (www.cgntv.net) SOON 페이지



마다가스카르의 풍경

신미식 사진작가, 여행수필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프레임 안에 사람과 삶, 다채로운 풍경을 담아낸다.
저서 <머문자리>, <사진가는 길에서 사랑을 배운다>, <천국의 땅, 에티오피아>외 다수



사역의 첫 고비를 지나며

아프리카 우간다 정봉진 선교사

2018년 4월_CGNTV 소식

아프리카 우간다 북부 정봉진, 손미애 선교사는 지난 4월, 한 동료 선교사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CGNTV 안테나를 설치 받겠냐는 것이었다. 전기 사정이 늘 여의치 않았던 두 사람은 TV에 대해 큰 감흥은 없었다. 아내 손미애 선교사는 도리어 반대였다. 하지만 정 선교사는 번뜩 아내 손 선교사가 떠올랐다. 한창 사역의 부침으로 우울증을 보였던 아내에게 CGNTV가 힘이 될 것 같았다.

2016년 3월_남수단 파송

정 선교사는 2016년 3월, 손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파송됐다. 정 선교사가 50대 후반을 넘어서던 때로, 장성한 두 아들을 한국에 두고 오를 길이었다. 뒤늦게 시작한 사역인 터라, 두 사람은 젊은 사역자들이 가기 어려운 남수단을 사역지로 택했다. 하지만 남수단에는 생각 이상의 난관이 많았다. 급기야 파송 이듬해인 2017년 6월, 격렬한 전투와 인명 살상이 있었던 내전이 발발했다.

내외는 한국 외교부의 철수 명령으로 내전 발발 전, 파송 4개월여 만에 기도하며 도착한 첫 사역지 남수단을 떠나야 했다. 막 친해지기 시작했던 현지인 이웃들에게 절대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가방 하나 들고 국경을 넘어야 했다.

2017년 6월_불안한 선교 현장

정 선교사에 따르면, 아내인 손 선교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다. 특히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채 버스에 몸을 싣고 70여 일을 떠돌면서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우간다로 넘어와 한 지인의 집에 머물게 됐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거의 두문불출하며 울기만 했다. 우간다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소속 단체에서 정 선교사 부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는 생각이 있어 더욱 마음을 놓지 못했다.

손 선교사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다른 한인 선교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영어로 드리는 현지 교회 예배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온전히 드리기 어려웠다. 정 선교사도 난민 선교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오는 상황이었었고,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 생각으로 그녀의 외로움은 더해갔다.

2018년 4월_예배의 기쁨 그리고 회복

안 되겠다 싶었던 정 선교사는 때마침 찾아와준 CGNTV 안테나를 설치했다. 설치를 만류했던 손 선교사는 뜻밖의 선물로 오랜만에 한국어 예배를 드리게 됐다. 큐티와 설교로 영적 갈망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아들을 보고 싶던 마음도 위로를 받았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손 선교사의 건강이 CGNTV를 설치한 후, 거짓말처럼 호전됐다. 그녀에게 CGNTV는 교회이자 공동체가 돼주었고, 그리운 아들이 있는 한국의 모습이었다.

정 선교사도 CGNTV를 통해 바쁜 사역으로 지친 심령을 충전했다. CGNTV로 아내와 예배도 함께 드리며, 서로 간의 대화도 늘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도 CGNTV를 통해 풀다.

2018년 현재_선교지의 아침

첫 사역지 남수단은 떠났지만, 정 선교사와 손 선교사는 현재 우간다 북부 지역에서 남수단 난민 사역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축,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우물 파기, 정수기 보급, 학교에 임시 텐트 교실 지원 등에 헌신한다. 또 단기구조가 아닌 장기적 생활 지원이 필요한 난민들을 위해 필요한 섬김의 몫을 다하고 있다. 정 선교사는 “CGNTV 설치 후 삶과 사역이 훨씬 즐거워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했다. 또한 “우간다 북부 선교지의 아침은 CGNTV 예배와 큐티로 밝아온다”고 덧붙였다.



CGNTV 국내뉴스

섬김의 열정 한걸음 더 CGNTV 전 직원 아웃리치

CGNTV 전 직원 아웃리치가 울여름에도 국내외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로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아카데미', '고향교회 섬김' 사역에 보다 만전을 기하며 섬김의 지평을 넓혔다.

올해 국내 미디어 아카데미는 '보다 나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진행됐고, 총 44명이 참석했다. 교회 영상 만들기, 모바일 홍보물 제작, 교회 음향 시스템 등 미디어 노하우를 전했다. 참석자 유성도 목사(운신장로교회)는 "멀리까지 자비량으로 와 섬겨준 CGNTV에 감동했다"며 "교회에 꼭 필요한 강의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대만 미디어 아카데미는 같은 달 17일부터 20일까지 대만 타이중 무의탕교회에서 열렸다. 현지 사역자 40여 명이 참석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 미디어 아카데미는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CCT 교단과 협력해 자리를 마련했다. 38명의 현지인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직접 영상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 CGNTV 직원 Bee는 "한국, 태국 형제자매들이 협력해 더욱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 기뻐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고향교회 섬김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73명의 직원이 충북 충주시 전원교회를 찾았다. 감자밭 네 곳의 감자 수확과 포장 작업을 돕고, 염색, 네일아트 등 마을주민들을 섬겼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마을잔치를 열어 장기자랑, 경품추첨, 주민 참여 노래자랑 등을 열어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주전원교회 한석봉 목사는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CGNTV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강릉 미디어 아카데미, 태국 미디어 아카데미, 충주 고향교회 섬김, 대만 미디어 아카데미

국제 무대에서 작품성 인정 받아

<서서평>, <다시 봄> 유럽기독교영화제 수상 외



CGNTV 다규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2017, 이하 <서서평>),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2017)이 유럽기독교영화제(CEVMA)에서 수상했다. 9월 8일 저녁(현지시간) 독일 부르바흐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서서평>은 고예산(5만 유로 이상) 다규/다큐드라마 부문 1등, <다시 봄>은 고예산 드라마 부문 2등에 올랐다. 심사위원인 릴리아니 올리베리 회장은 "서서평의 헌신적인 삶이 깊은 울림을 줬다"며 "이 작품이 위로가 필요한 많은 여성들에게 소개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시 봄>은 섬세한 연출과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평했다. 두 작품은 한국적인 내용으로 해외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 더욱 뜻깊었다.

한편 <서서평>은 지난 7월 14일(미국 현지시간) 국제 기독교콘텐츠 시상식인 ICVM 크라운어워즈에서 해외영화부문 은상을 받았다. 이로써 <서서평>은 ICFF 국제기독교영화제 최우수상에 이어 국제 무대에서 세 번째 수상 소식을 전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5만 명 후원자'를 위한 한 마음

운영위, 여성운영위 바자회, 드림온맘

미디어 선교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지난 9월 한 달, CGNTV 후원을 위한 다양한 자리가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CGNTV 운영위원회가 9월 8일 오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13일에는 여성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바자회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법무법인 산지에서 진행됐다. CGNTV를 위한 여성연합기도모임 '드림온맘'도 17일 오후 2시 CGNTV 1층 비전홀에서 있었다.

CGNTV 운영위원회는 CGNTV '5만 명 후원자'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전들을 공유했다. 온누리선교재단 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를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훈 목사의 말씀, 정상건 운영위원장의 운영위 보고, 이용경 CGNTV 대표의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 목사는 빌립보서 4장 10절~20절을 본문으로 '믿음 선교'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우는 CGNTV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 운영위원장은 "CGNTV 5만 명 후원자는 한국교회 영적 지형도와 미디어 생태계를 바꿀 것"이라며, CGNTV 시청 홍보 및 체계적인 후원관리를 위한 운영위 협조 등을 적극 강조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여성운영위 바자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유명 연예인 및 기업인들의 패



션 용품, 다과 등의 기증이 이어져 더욱 활기를 띠었다. 온누리교회 캠퍼스를 중심으로 총 6개 팀으로 구성된 CGNTV 여성연합기도모임 '드림온맘'도 전 팀이 한 자리에 모여 5만 명 후원자 비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정기후원 홍보영상 상영 및 '1대3 후원 캠페인' 소개 등이 이어졌고, CGNTV 후원기획실 직원들의 특별찬양도 진행됐다.

CGNTV 해외뉴스



미주 CGNTV <The 부르심> 200회 특집 공개 방송

미주 CGNTV는 지난 9월 15일 알바인 온누리교회에서 <The 부르심> 200회 특집 공개방송 'The 부르심 콘서트'를 개최했다. 레위남성성가단의 축하공연과 권혁빈 목사의 메시지, 영김 의원의 축사로 행사의 의미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뮤지컬 배우 류승주 등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자리를 빛냈고, 79, 80회 출연한 린다 한 권사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더했다. <The 부르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간증을 전하는 미주 CGNTV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일본 CGNTV 아웃리치, 재난 지역 섬김

일본 CGNTV는 지난 여름 홋카이도 아웃리치, 서일본 집중 호우 피해 지역 취재를 다녀왔다. 3박 4일간 아사히카와 카무이 그리스도교회(담임 후쿠모리 목사)에서 진행된 아웃리치에서는 교회 앞 도로공사에 참여, 지역주민들과 성도들의 편의를 도왔다. 7월 31일, 8월 1일에는 서일본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인 오카야마와 히로시마를 찾아가 구호 단체들의 사랑의 섬김을 카메라에 담았다. 일본 CGNTV는 일본 크리스천 미디어 중 가장 먼저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일본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아랍 CGNTV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드림온캠페인 아웃리치

아랍 CGNTV 협력교회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여름 아웃리치로 CGNTV 드림온 캠페인 안테나 사역에 참여했다. 총 14명이 아부다비 한인선교사 9가정에 CGNTV 안테나를 설치했다. 더불어 이집트 현지 교회를 방문, 아랍 선교사 발굴을 위한 리서치 작업도 병행했다. 또한 아랍 CGNTV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 영상교육을 받은 팀원들은 '목적 있는 휴가'를 주제로, 아랍 지역 문화와 종교에 대한 영상 리서치 및 촬영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CGNTV 4주년 감사예배, 드림온 콘서트

인도네시아 CGNTV 설립 4주년 감사예배 및 드림온 콘서트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지난 9월 15일 자카르타 참빛교회에서 열렸다. 한인교와 인도네시아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예배와 찬양으로 함께했다. 또한 드림온 콘서트 영상을 통해 소개됐던 샘 목사가 직접 간증을 나눠 감동을 더했다. 샘 목사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말씀을 전한 복음주의교회협의회 로니 만당 목사는 "1만 8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 CGNTV는 더욱 필요한 선교 도구"라며 인도네시아 CGNTV 설립 4주년을 축하했다.



대만 CGNTV '공감&공생', 제2회 미디어 아카데미

대만 CGNTV는 대만 교회와의 '공감&공생' 프로젝트로,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대만 중부 지역 타이중에서 제2회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타이중뿐 아니라 대만 남부 까오슝 학생들까지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총 40여 명이 등록해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 자막을 실습 중심으로 익혔다. 까오슝에서 온 교회 미디어 사역자 '롄핑롱 자매'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 감사하다"며 "사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만 CGNTV는 미디어 아카데미 후속으로 SNS 그룹을 만들어 참석했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미디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태국 CGNTV 첫 번째 찬양집회 'Closer Worship Night'

태국 CGNTV 첫 번째 찬양전도집회 '주님께 더 가까이, Closer Worship Night'가 지난 9월 21일 방콕 ECB(Evangelical Church of Bangkok) 교회에서 열렸다. '침(Pause)'을 주제로, 태국 '트루 워십퍼(True Worshipper)' 찬양팀이 인도하고 100여 명의 스태프가 자원봉사로 함께한 가운데, 태국 크리스천 청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태국 CGNTV는 찬양 예배가 흔치 않은 방콕에서 'Closer Worship Night'을 통해 젊은이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05:4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6: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11:10 KNOCK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6:4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2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08: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30 생명의 삶 08:5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06: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20 [말씀] 홍길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08:30 생명의 삶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예수님의 온기 36.5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4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08:00 나침반 바이블 08:30 생명의 삶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플러스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06:4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00 나침반 바이블 08:30 생명의 삶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6: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8:00 나침반 플러스 08:30 생명의 삶 08:5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이재훈 목사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11:0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1: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4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0: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1:40 예수님이 좋아요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나침반 바이블 16:3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10 CGN 투데이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2:10 CGN 투데이 12:3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13: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2:10 CGN 투데이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형강 <나침반> 16:5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12:10 CGN 투데이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뉴저지필그림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최경욱 목사(LA또감사교회)	12:10 CGN 투데이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12:0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4:50 KNOCK 15:00 나침반 바이블 16: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7:2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8: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나침반 플러스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10 한국순례기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마리아나 황 교수의 글로벌 시대 자녀를 위한 세계관 21:0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컨퍼런스] 성경이 답하는 결혼과 동성애 00:20 CGN 투데이	18: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8: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림교회) 20:10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이재훈 목사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까 00:20 CGN 투데이	18:1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예수님의 온기 36.5 23:2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0:20 CGN 투데이	18:10 예수님의 온기 36.5 18:50 [말씀] 김형익 목사(뽕살롬교회) 19: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10 김남준 목사의 관계회복서 <가족> 21:0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유기성 목사의 예수님과 동행하기 22: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CGN 투데이	18:10 KNOCK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일터사역 세미나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칩 잉그램의 증거하는 삶 00:20 CGN 투데이	18:00 하용조 목사의 십자가 묵상 (영어자막) 18:40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예수님의 온기 36.5 22: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나침반 플러스 00:20 생명의 삶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1990년대 초 나는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에 살고 있었다. 신학 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었다. 우리 말로 하는 설교를 듣고 싶었다. 인터넷 이메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이다. 한 후원교회의 크리스마스 선물 패키지 안에 있던 설교 카세트테이프 30여 개를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0년도 지나지 않았다. 지금의 선교지는 그때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2년 전, 동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다. 나를 안다고 하는 그분을 나는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야, 그 선교사님은 CGNTV에 방송된 나의 강의 시리즈를 들었노라고 하셨다. 설교 테이프가 늘어지게 설교를 듣는 말은 이젠 사라진 옛이야기일 뿐이다. CGNTV가 지구촌 구석까지 찾아가 영상으로 설교와 강의들을 공급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3년 전,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CGNTV의 연락을 받았다. <나침반 바이블>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누가 그 많은 케이블 채널 중 CGNTV를 보겠는가 생각했다. 이후 내 판단은 무참히 깨어졌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떠났다가 CGNTV에서 방영된 <나침반 바이블>의 '율법과 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기도 했고 혹은 직접 만나서 듣기도 했다. 방송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불특정 다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는 심히 적을 것이다. CGNTV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열매를 보고 놀라고 놀랄 것이다. 이 일에 자신들의 땀과 수고를 들인 사람들은 그날 주님으로부터 감당 못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설교자를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해주는 CGNTV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축량할 수 없는 값진 수고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벤살롬교회 김형익 목사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은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곽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희준,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경,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이식, 유병진,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범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용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실, 정상기,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운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은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영로백전**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영광**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 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